



지부교섭 속보

기본급 154,883원 인상!
임금 안정성 쟁취!
공민권 행사 보장!

제1호 / '17.7.20(목)

발행처: 교육선전부 | 발행인: 김정태 |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60번지 근로자복지회관 2층 | 전화: 043-236-5077 | http://dc.kmwu.kr

지부요구안 의견접근!

임금인상안은 각 지회별 논의

4월 6일부터 석달이 넘게 진행된 지부교섭이 드디어 의견접근에 이르렀다. 노사 양측은 20일(목) 열린 13차 교섭에서 지부 요구안에 대해서 의견 차이를 좁혔다. 임금 인상안은 1차 제시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더 이상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부는 임금인상을 제외한 나머지 요구안에 대해 의견접근했음을 확인하고 이후 지회별로 임금인상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의견접근안]

1. 2017년 임금인상 : 별도 제시

2. 임금안정성 확보를 위한 요구안

조합원이 감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질병이 의심되어 치료를 위한 조퇴 후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는 해당 조퇴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3. 공민권 행사 보장 요구안

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또는 일수를 청구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시간 또는 일수에 대해 임금 공제를 하지 않는다.

(ㄱ) 병역법에 따라 근무시간 중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의 병역의무를 수행할 때

(ㄴ) 공적인 사유로 국회, 법원, 노동위원회, 수사기관에 출석을 요구받는 경우

(ㄷ)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보궐선거에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근무로 인해 투표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선거당일 2시간의 투표시간을 보장한다.

(ㄹ) 천재, 지변, 교통차단의 사유로 순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②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예비군 및 민방위 소집에 응하는 경우는 각 사별 근태처리 규정에 따라 익일 유급, 출근 연기 등을 적용한다. 단, 개인사정으로 정규 훈련에 불참하여 발생된 보충훈련은 인정하지 않는다.

③ 병역법에 의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때는 해당일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4. 기타

① 각 사별 단체협약, 노사합의, 노사관행이 상기 합의 사항보다 상회할 경우 그에 따른다.

② 상기 3은 사후 7일 이내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2017년 임금인상 1차 제시안

- 한온시스템 : 기본급 월 80,000원
- 한국JCC : 기본급 월 30,000원
- 코스모링크 : 기본급 월 43,200원
- 대한이연 : 기본급 월 33,000원
- 로버트보쉬 : 추후 제시
- 한국KDK : 기본급 월 30,000원

추후 지회별 논의

최저임금도 16.4% 인상 지회별 임금인상도 충분히 높아야

노 : 모두 발언은 별도로 하지 않겠다. 제시안 있으면 내달라. 오늘 타결 볼 수 있게 진행되면 좋겠다. 제시안 받고 정회하자.

사 : 최저임금이 확정됐다. 임금이라는 부분이 근로자 입장에선 소중한 것이다. 생계를 유지해야하고 삶의 질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반면에 기업 입장에선 비용 측면에서 고민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임금근로자는 환영할만 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규모가 작은 기업은 굉장히 어렵다. 직접 영향이 없는 기업도 협력업체가 영향을 받아 그 영향이 돌아온다. 이것이 압박으로 작용한다면 경영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위기고 심각하다. 임금협상 뿐만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태를 같이 고민해야 한다. 우리 회사 환경이 어떤지, 어떤 타개책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고 같이 논의해서 풀어나가야 한다. 지회를 모아서 각 사들 차이에도 불구하고 안을 준비했다. 받아보고 판단해달라. **〈제시안 제출〉**

임금안정성 요구안은 지난 교섭에서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로 제시했는데 실무교섭에서 의사 소견서 제출을 얘기하셔서 나름 고민해서 진단서 제출로 제안했다. 공민권 행사 중 국회, 법원, 노동위원회, 수사기관 출석에 대해서 조합을 대표하는 자로 제시했는데, 조합 전임 및 간부로 수정했다. 당연히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보장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노 : 공민권 행사 중 공적인 사유라는 건 조합 활동도 포함하나?

사 : 해석의 여지가 있겠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계속 논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노 : 조합 업무 관련한 것이 아니라면 조합 전임과 간부라고 한정할 필요가 있나? 공적인 범위에 조합활동이 포함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도 조합활동을 포함하는 내용인 건지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사 : 정회시간 더 논의해보고 말씀드리겠다.

〈정회 후 속개〉

노 : 최종적으로 정리된 제시안으로 지부요구안은 의견접근하고 각 사별로 임금안 논의할 시간 드리겠다.

〈사업장별 논의 후 속개〉

노 : 확인해보니 지회에서 임금안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 임금안은 사업장별로 소통만 하고 지부교섭에서 제시해야 하는데 미리 지회에 제시한 곳이 있어서 서운하다. 지부교섭 모양새를 우습게 만든 꼴이다.

사 : 좀 더 논의를 해야할 것 같다. 회사도 고민하고 있다. 임금은 각 사 사정이 있으니 지켜봐달라.

노 : 최저임금도 16% 이상 오르고, 올해 임금인상은 사회적 분위기를 봤을 때 충분히 내야 한다. 그동안 기업 성장으로 인한 낙수효과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그런 차원에서 임금 인상을 고민해야 한다. 오늘 지부교섭은 의견접근 내용 확인하고 잠정 중단하고 각 지회에서 임금안을 다루도록 내리려고 한다. 되도록 월요일 오전까지 임금안도 의견접근하면 좋겠다. 각 지회별로 합의가 되면 조인식을 열도록 하겠다.